

<b>2026년 7월, 출범 확정</b> <b>제물포구·영종구</b> <b>서구·검단구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이제는 인천입니다 <b>2025 APEC INCHEON</b>
배포일자		2024년 4월 25일(목)		총 2매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당자	• 물류정책팀장 이양숙 ☎440-3871 • 담당자 천주현 ☎440-3872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디지털물류 선도 올해 2천3백억 원 투입 ... 「2024년 지역물류시행계획」 확정

인천광역시는 「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」을 심의·확정했다고 밝혔다.

「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」은 「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(2023~2032)」의 비전인 ‘디지털물류 선도·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중 2024년 중 추진될 40개 세부추진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및 상세내용을 담고 있다.

인천시는 우선 물류 기반시설(인프라)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흥동 삼익아파트~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등 미집행 도로망을 조속히 추진·정비하고, 인천 남항 항만 배후단지 조성 지원 등을 통한 단절 없는 물류거점 및 연계체계를 구축한다.

아울러, 급증하는 물류수요 대응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등 인천공항만 내 첨단 기반시설(인프라)을 구축하고 디지털

물류산업과 인력을 양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스마트·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.

또한, 사람 중심의 물류생태계 구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안전 및 휴식 보장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를 운영하고,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소상공인 공동 물류센터 등 공동·공유형 물류 기반시설(인프라)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이밖에 지속가능한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물류산업 안전관리 강화, 친환경 물류장비 및 기반시설(인프라) 확충, 신재생 에너지 물류 분야를 활성화 하고 항공정비산업(MRO) 등 인천 특화형 물류산업 육성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
인천시는 이를 위해 2024년 국·시비 547억 원 포함 2024년 총 2,3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밝혔다.

김원연 인천시 물류정책과장은 “「2024년 지역물류 시행계획」은 「인천시 제4차 지역물류 기본계획」의 실현을 위한 2년 차 계획으로서,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‘디지털물류 선도·글로벌 물류 성장엔진 인천 구현’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